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조은경* · 박지선**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선족일 때와 한국인일 때, 더불어 피고인이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사건에 대한 처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특성(민족성, 성별)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자가 지각한 피고인의 책임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 매개 효과가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20-59세의 총 275명(남성 138명, 여성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의 성별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민족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경우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일 때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하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12.31.4.63>.

❖ 주제어 : 살인, 조선족, 여성, 처벌 판단, 권위주의적 성격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촉조사연구원

**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I. 서론

2012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과 2014년 11월 수원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팔달산에 유기한 박춘풍 사건 등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에 의한 살인 범죄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범죄의 발생 및 위험 지각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에 영향을 미친다(허윤철·임영호, 2015; Romer et al., 2003). 실제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언론의 범죄 보도율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범죄가 실제로 더 자주 발생한다고 느끼며(박지선·박상조, 2013; Diefenbach & West, 2001), 범죄 보도를 더 많이 접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낀다(이기수·윤상연, 2017).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 두 사건 발생 전인 약 10여 년 전 진행된 연구에서는 조선족에 대해 두드러진 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선족에 대한 인상 또한 대체로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김동수 외, 2011). 오히려 조선족이 한국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사회적 거리감이 적다고 느꼈다(김동수 외, 2011; 황정미 외, 2007).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조선족을 범죄와 연결 짓는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김지혜, 2018; 조우연, 2019).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보도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한국인에 의한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보도되었으며,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나 범죄자가 조선족인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조·박승관, 2016). 특정 집단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범죄 수에 비해 보도량이 많은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에 대한 과장된 위험 지각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Chirics & Eschholz, 2002; Poindexter et al., 2003), 조선족 범죄가 과잉 보도되는 경향은 조선족 전반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총 22개 국가와 새터민 중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희정, 2017). 조선족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인식은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범죄에 대한 인식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가해자 특성에 따른 언론의 과잉보도 현상은 조선족뿐만 아니라 여성 범죄자를 대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 연구에서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언론 보도 방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성 범죄자를 다루는 기사는 남성 범죄자를 다루는 기사에 비해 해당 사건이 신문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어지거나 앞면에 실릴 확률, 단독 보도될 확률이 남성 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지어 글자 크기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Grabe et al., 2006).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여성 범죄자 수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범죄자가 저지른 살인 사건의 보도 비율이 남성 범죄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Estrada et al., 2019). 국내에서도 최근 여성 범죄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가해자의 성별이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범죄 보도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과 편리성도 있으나, 사회 현상이 왜곡,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족이나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는 그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라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고정관념과 귀인에 따른 사건 판단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일보다 범죄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일 때 두드러진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는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 Heider, 1958)을 발전시키며 사건의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귀인 이론은 사건의 원인을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사건이 행위자의 성격이나 능력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적 귀인, 사건이 그 당시의 상황이나 운과 같이 행위자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적 귀인으로 구분된다.

귀인 판단을 할 때 사회적 맥락이나 고정관념 또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대상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의 특징이 일반화되어 전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미한다(Myers & Twenge, 2019; Strangor, 2009). 따라서 사건 행위자의 특성이 판단자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에 내적 귀인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혜숙, 1993; LaCosse et al., 2016). 특히, 고정관념은 그 자체로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과잉 일반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편견(prejudice)과 부정적 태도인 차별(discrimination)로 이어질 수 있다(LaCosse et al., 2016; Myers & Twenge, 2019; Strangor, 2009). 예를 들어, 조선족의 범죄율이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과잉 일반화되어 ‘조선족은 범죄자’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조선인에 대한 실제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선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있다고 내적 귀인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 나아가, 내적 귀인은 행위에 대한 처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rdon과 그의 동료들(1988)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들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강도와 횡령을 묘사하는 글을 읽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때 조건에 따라 가해자는 흑인 혹은 백인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인종적 특성이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 즉 흑인의 경우에는 강도, 백인의 경우에는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긴 형량을 부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많은 연구가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편향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지지했다. 또한 박희찬과 김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절도 범죄와 관련하여 한국인에 비해 동남아시아인이 고정관념에 보다 부합한다고 평가되었는데, 절도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범죄자가 한국인보다 동남아시아인일 때 범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인 요인으로 귀인하고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국내 연구는 범죄의 전형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최승혁, 2020; 최승혁·허태균, 2012; 최승혁·허태균, 2020). 해당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전형적으로 묘사된 상황의 범죄자가 고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최승혁·허태균, 2020). 또한, 이러한 효과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혁, 2020).

2. 범죄 사건 판단에서 편향을 일으키는 요인: 가해자의 민족성과 성별

가. 가해자 민족성과 범죄 사건 판단에서의 편향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편향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가해자의 성별(정지원 외, 2015), 나이(김현승·박지선, 2020), 피해자와의 관계(이정원·김혜숙, 2012; Gravelin et al., 2019), 사회경제적 지위(박희찬·김혜숙, 2010; 홍세은 외, 2018) 등에 따른 차이를 주로 살펴보았다. 인종 및 민족 갈등이 큰 사회 문제인 외국에서는 이에 따른 판단 편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해 왔다. 가해자의 인종적 혹은 민족적 특성에 따라 사건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해자가 인종 또는 민족적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할 경우, 그렇지 않은 가해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Espinoza et al., 2015; Rozmann & Levy, 2019; Rozmann & Walsh, 2018). 예를 들어 가해자가 백인보다는 흑인인 경우에 범죄가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해자가 아프리카계이거나 라틴계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 판단을 받았다(Doerner & Demuth, 2010; Lowder et al., 2019; Singh & Sprott, 2017).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수집단이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범죄 사건 판단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향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선족은 인종이나 민족적 구분상 한국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관련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다(양은경, 2010).

최근에는 조선족을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조인숙·김도연, 2020). 한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트위터(twitter) 메시지를 분석하였는데, 중국 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타국 동포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연구 대상이 되었던 집단 중 유일하게 범죄와의 연관성이 주요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영 외, 2018). 또한 조선족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해당 기사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와 다름을 전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여전히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으며, 더 나아가 기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배준환·이춘호, 2018).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여러 이주민 집단(22개 출신국과 조선족,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김희정(2017)은 이주민 집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봤는데, 대체로 각 집단의 출신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집단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조선족은 특유의 범죄적 이미지가 강해 다른 집단과 함께 묶이지 못했으며, 인터뷰에 응한 모든 참가자가 조선족은 잠재적 범죄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민족적,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범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약 10년 전에 진행된 연구(박희찬·김혜숙, 2010)만이 범죄자의 인종을 고려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에서는 살인을 포함한 총 8개 범죄 유형에 대해 가해자의 국적(한국 대 동남아 노동자),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등을 달리하여 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존재 여부와 이에 따라 처벌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합하는 특성이 있을 때(예: 동남아 노동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를 더 오랜 기간 수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박희찬·김혜숙, 2010).

앞서 살펴본 일련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판단자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의 민족성에 따라 사건에 대한 책임 수준의 지각 혹은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살인 사건에서, 조선족 피고인이 한국인 피고인보다 더 엄중한 판단(사건에 대한 높은 책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나. 가해자 성별과 범죄 사건 판단에서의 편향

가해자의 성별 또한 범죄 전형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범죄율이 여성의 범죄율보다 훨씬 높으며, 2020년 발생한 범죄 중에 몇몇 유형을 제외한 여러 범죄에서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대검찰청, 2021). 그러나 이제까지 범죄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피해자나 판단자의 성별에 비해 가해자 성별의 효과는 국내에서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범죄에 관한 인식 연구가 대체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으로 설정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실제로 가해자 성별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저지른 범죄가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ye et al., 2006).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남성의 범죄는 여성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게 여겨졌다(Savage et al., 2017; Wilson & Smirles, 2020). 호주의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경찰들은 동일한 범죄일지라도 가해자가 남성이면 더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Kite & Tyson, 2004).

그러나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범죄 관련이며, 살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렵다. 다만 언론에서 여성 살인 범죄자와 남성 살인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Estrada et al., 2019; Grabe et al., 2006) 살인에 대한 인식에서도 범죄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약 80%가 남성으로 나타나므로(대검찰청, 2021), 살인에 있어 남성 범죄자를 보다 전형적으로 지각하여 이로 인해 가해자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앞서 살펴본 범죄

전형성 가설에 따라, 더 전형적인 남성 살인 범죄자는 여성 살인 범죄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 살인 사건에서 남성 피고인이 여성 피고인보다 더 엄중한 판단(높은 책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3.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심리적 개념이다(Adorno et al., 2019).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대상을 강자와 약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강자에게는 무비판적 수용 및 복종을 보이고 약자에게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다(홍지웅 외, 2016). 따라서 권위주의적 성격은 그간 인종 및 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지역 갈등, 성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재신·한성열, 2004; Kauff et al., 2013).

민경환(1989)은 Adorno 외(2019)가 제시한 권위주의의 9가지 차원에 근거하여 총 35문항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해당 척도는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민경환, 1989). 또한, 최근에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강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원·권구순, 201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무자 중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강방글·이영선, 2013).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격의 효과는 은밀한 차별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폭력, 또는 범죄 상황 및 판단에서도 나타난다. 중학생들의 권위주의와 학교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권위주의 성격 특성이 높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동조와 방관 경험이 더 많았다(이종원 외, 2014).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단에서도 판단자의 성별이나 연령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권위주의적 성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림·박지선,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피고인의 특성(민족성 및 성별)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3.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의 특성(민족성 및 성별)이 사건에 대한 책임 지각 및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조절할 것이다.

4. 사건에 대한 책임 지각 및 처벌 판단

범죄 사건 판단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 책임, 원인, 그리고 처벌이나 형량,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양동욱 외, 2012; 이가영 외, 2018; 조병철·김혜숙, 2018). 이러한 변인들은 종종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별다른 구분 없이 종속 변인으로 함께 측정되었다. 그러나 Critchlow(1985)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판단의 영역들이 서로 다름을 주장하였다. 즉, 다양한 범죄 행위(위조, 횡령, 폭행, 강도 등)에 관한 판단을 비교하여 행동의 유형마다 종속 변인 값이 나타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인과추론(cause)과 책임(responsibility), 비난(blame), 처벌(punishment)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ritchlow, 1985).

국내에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세부적으로 (1) 행위자의 책임 혹은 비난, (2) 피해자의 잘못, (3) 처벌 크기의 3가지 변인으로 구분되었다(고재홍, 1991). 그러나 이후로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가해자 요인에 따른 판단자들의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처벌 판단과 책임 지각을 구분하였다(홍세은 외, 2018). 이들은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불확실할 때,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판단자가 지각한 책임의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판단자가 내리는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판단이 지각된 책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책임 지각과

처벌 판단을 구분하는 것은 살인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특성(민족성 및 성별)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 지각과 처벌 판단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가해자 민족성 및 성별)에 따른 사건의 처벌 판단에서, 판단자들이 지각하는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책임 수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수준이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4. 피고인 특성(민족성, 성별)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조절할 것이다.

Ⅲ.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59세의 한국인 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참가자 중 남성은 총 138명(20대 30명, 30대 34명, 40대 33명, 50대 41명), 여성은 137명(20대 34명, 30대 30명, 40대 42명, 50대 31명)이었다. 남성은 최소 22세부터 최대 5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40.6세였다($SD = 10.83$). 여성은 최소 20세부터 최대 59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39.41세였다($SD = 10.71$).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273) = .89, n.s.$).

2. 연구 절차

참가자들은 연구 안내문을 읽고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2×2 (피고인 민족성: 한국인, 조선족; 피고인 성별: 남성, 여성)의 네 가지 실험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어 배정받은 시나리오를 읽었다. 이후 조작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성별과 민족성에 대해 응답한 뒤, 자신이 읽은 시나리오 속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적 성격 척도에 응답하였다.

3. 연구 변인

가. 독립변인: 피고인 민족성, 피고인 성별

독립변인인 피고인의 민족성은 한국인과 조선족으로 구분하였으며, 피고인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인’은 국적에 의한 구분이나, ‘조선족’에 비해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구 편의상 ‘한국인’과 ‘조선족’으로 피고인 민족성을 표기하였다.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판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인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부분(피고인 민족성과 성별)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외생 변인의 개입을 통제하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한국인 남성, 33세)를 피고인(한국인 남성/조선족 남성/한국인 여성/조선족 여성, 35세)이 말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한 쪽 다리를 저는 피고인에게 ‘병X’이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허리, 가슴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싸움을 말려도 피해자가 듣지 않아 단지 겁만 주려고 칼로 허벅지를 찌르려고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는 바람에 그 왼팔과 허리 부분을 찌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쥐고 덮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가슴을 찔리게 된 것뿐,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일부러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고 진술하였다.

나. 매개 변인 및 종속 변인: 피고인에 대한 책임, 처벌 판단

본 연구의 매개 변인인 피고인에 대한 책임과 종속 변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은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책임 지각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문항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에 가까울수록 피고인의 책임과 처벌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7점에 가까이 응답할수록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다. 권위주의적 성격

참가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민경환(1989)의 권위주의 성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등의 속성을 측정하는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총 5점 리커트(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를 권위주의적 성격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했으며, 가설 3의 조절효과와 가설 4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3.5버전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본 뒤,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및 피고인에 대한 판단 차이를 t검정과 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1과 2의 피고인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책임 및 처벌 판단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가설 3의 조절효과와 가설4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1. 사전 분석 및 기술통계

본 분석을 시행하기 전, 각 실험 조건에 따라 할당된 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 조건 간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_{\text{성별}} = .10$, $p_{\text{성별}} = .99$, $F_{\text{연령}} = .19$, $p_{\text{연령}} = .91$). 참가자의 특성을 제외한 권위주의, 피고인 책임, 피고인 처벌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권위주의적 성격,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의 기술통계

변인	N	min	max	M	SD
권위주의	275	1.29	4.29	2.76	.51
피고인 책임	275	1.00	7.00	5.59	1.30
피고인 처벌	275	1.00	7.00	5.28	1.25

2. 판단자 특성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및 피고인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권위주의적 성격과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우선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에 대해 더 책임이 크다고 보았으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권위주의적 성격 및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판단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변인에 따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후 분석 과정에서 판단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였다.

〈표 2〉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

변인	성별				<i>t</i>	<i>df</i>
	남성		여성			
	<i>M</i>	<i>SD</i>	<i>M</i>	<i>SD</i>		
권위주의	2.81	.50	2.71	.51	1.66	273
피고인 책임	5.77	1.23	5.40	1.34	2.36 [*]	273
피고인 처벌	5.43	1.21	5.13	1.27	1.98 [*]	273

* $p < .05$

〈표 3〉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권위주의적 성격,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

변인	<i>b</i>	<i>SE</i>	β	<i>t</i>	<i>F</i>	R^2	adjusted R^2
권위주의	.01	.00	.13	2.20	4.79*	.02	.01
피고인 책임	-.01	.01	-.11	-1.90	3.60	.01	.01
피고인 처벌	-.01	.01	-.07	-1.21	1.45	.01	.00

* $p < .05$

3. 피고인의 민족성 및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

독립변인인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이때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책임 지각에서 피고인의 성별과 민족성은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서는 피고인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고인 민족성의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에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별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 피고인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책임 및 처벌 판단

변인	독립 변인	SS	df	MS	F	partial η^2
피고인 책임	피고인 성별 (a)	.85	1	.85	.51	.00
	피고인 민족성 (b)	1.25	1	1.25	.76	.00
	a × b	.29	1	.29	.18	.00
	(참가자 성별)	9.99	1	9.99	6.05 [*]	.02
	(참가자 연령)	6.87	1	6.87	4.16 [*]	.02
피고인 처벌	피고인 성별 (a)	4.13	1	4.13	2.72	.01
	피고인 민족성 (b)	6.52	1	6.52	4.30 [*]	.02
	a × b	.05	1	.05	.03	.00
	(참가자 성별)	6.22	1	6.22	4.10 [*]	.02
	(참가자 연령)	2.72	1	2.72	1.79	.01

* $p < .05$

4.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피고인의 민족성과 권위주의, 피고인 책임 및 처벌 판단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피고인의 민족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다른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일 때 피고인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에 대한 책임 및 처벌 판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일수록 피고인의 책임을 적게 평가하며, 처벌 또한 약하게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책임과 처벌 판단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5〉 피고인 민족성과 권위주의, 책임 지각 및 처벌 판단의 상관관계

	피고인 민족성	권위주의	피고인 책임
권위주의	.00		
피고인 책임	.05	-.12 [*]	
피고인 처벌	.12 [*]	-.15 [*]	.74 ^{***}

* $p < .05$, *** $p < .001$

5. 피고인 민족성이 책임 및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효과

판단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피고인의 민족성이 피고인에 대한 책임 시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75$, $SE = .30$, $t = 2.46$, $p = .02$).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피고인 민족성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1단계에는 통제변인을, 2단계에는 참가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이 조선족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책임이 덜 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판단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피고인의 민족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조사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53$, $SE = .29$, $t = 1.82$, $p = .07$). 그러나 피고인 민족성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 책임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조선족인 경우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피고인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이 더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권위주의적 성격이 피고인 책임 지각에 미치는 효과

피고인 민족성 = 한국인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6.86		8.63	
(참가자 성별)	-.25	-.10	-.32	-.13
(참가자 연령)	-.02	-.21	-.02	-.18
권위주의			-.65	-.26
R^2		.05		.12*
<i>F</i>		3.49*		5.80**

피고인 민족성 = 조선족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6.62		6.54	
(참가자 성별)	-.51	-.20	-.51	-.20
(참가자 연령)	-.01	-.04	-.01	-.04
권위주의			.03	.01
R^2		.04		.04
<i>F</i>		2.80		1.86

* $p < .05$, ** $p < .01$

〈표 7〉 권위주의적 성격이 피고인 처벌 판단에 미치는 효과

피고인 민족성 = 한국인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5.86		7.49	
(참가자 성별)	-.07	-.03	-.13	-.05
(참가자 연령)	-.02	-.14	-.01	-.11
권위주의			-.60	-.24
R^2		.02		.08**
<i>F</i>		1.24		3.55*

피고인 민족성 = 조선족	1단계		2단계	
	<i>b</i>	β	<i>b</i>	β
상수	6.35		6.70	
(참가자 성별)	-.53	-.22	-.55	-.23
(참가자 연령)	-.00	-.03	-.00	-.02
권위주의			-.14	-.06
R^2		.05*		.05
<i>F</i>		3.60*		3.54

* $p < .05$, ** $p < .01$

6. 피고인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

피고인의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책임 지각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형 4번을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과 통제변인은 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지각은 피고인의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b = .10$, $SE = .11$, 95% CI $[-.13, .32]$). 즉, 피고인이 한국인인 경우보다 조선족인 경우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피고인의 책임 지각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피고인 민족성과 처벌 판단에서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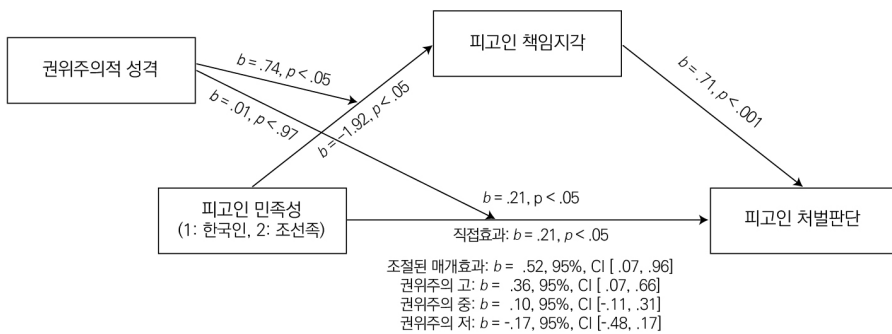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피고인 민족성 → 처벌 판단	.31	.15	.01	.60
직접효과				
피고인 민족성 → 처벌 판단	.21	.10	.01	.41
간접효과				
피고인 민족성 → 책임 지각 → 처벌 판단	.10	.11	-.12	.31

7.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인 권위주의적 성격의 수준에 따라 매개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의 모형 8번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과 통제 변인은 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의 민족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53, $SE = .23$, 95% CI $[.07, .98]$). 구체적으로,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보통 수준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선족일

때 처벌 판단을 함에 있어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에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처벌 또한 더욱 강한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권위주의적 성격의 조절된 매개효과



V. 논의

조선족이나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여전히 희소한 현실점에서, 본 연구는 가해자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책임 지각과 실제 처벌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같은 살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같은 범죄라도 가해자가 민족적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할 때 더 엄중한 처벌 판단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Doerner & Demuth, 2010; Sing & Sprott, 2017). 더불어,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특성(민족성 및 성별)에 따른 사건 판단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단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국인일 때보다 조선족인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사건일지라도 피고인의 민족성에 따라 책임 및 처벌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피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개인의 민족성을 근거로 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장기적인 사회 갈등을 불러온다(Chiricos & Eschholz, 2002). 특히, 전형성과 부합하는 사건은 판단자의 고정관념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처음 세운 가설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확증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최승혁, 2020), 이는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일반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편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실무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고정관념과 인지 편향이 형사사법 실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피고인의 민족성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참가자들에게서는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조선족인 피고인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더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피고인의 책임 또한 더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집단인 외국인 또는 소수 민족에게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편견이 실제 처벌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결과는 책임 지각과 처벌 판단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구분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고재홍, 1991; Critchlow, 1985)을 지지하며, 이는 일반인이 사건 관련 판단을 내릴 때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범죄 사건 판단 관련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종속 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가해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전형성에 따른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대체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성별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살인에서의 가해자 성별 효과를 살펴보았다. 강간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있어 그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하나, 살인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체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시된 살인 사건 시나리오에서 가해자가 남성

인 조건이 전형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남성인 것에 비해 전형적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자가 지각하는 전형성의 정도가 선행연구들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범죄자의 비전형성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성별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대체로 외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실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 만큼 실험연구 결과에 비해 현실이 과장 또는 축소되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판단 차이를 살펴볼 때, 범죄 유형별로 전형적인 가해자의 성별에 대해 사전에 점화(priming)를 하거나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추가하여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조선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민족성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건에 대한 책임 지각을 넘어 처벌 판단에까지 피고인의 민족성에 따른 효과가 미치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사사법 판단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가해자의 민족성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다민족 사회에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대검찰청 (2021). 2020 범죄분석.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dorno, T., Frenkel-Bre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2019).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Verso Books.
- Myers, D. G., & Twenge, J. M. (2019). *Social Psychology*(13th), McGraw-Hill Education.
- Strangor, C. (2009). “The Study of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ithin Social Psychology: A Quick History of Theory and Research”. In T. D. Nelson (Eds.),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 1-12). Psychology Press.

2. 논문

- 강방글·이영선 (2013).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6, pp.1-21.
- 고재홍 (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1), pp.1-21.
- 김동수·김도환·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pp.1-23.
- 김재신·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pp.97-114.
- 김지혜 (2018).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1(2), pp.37-73.

- 김현승·박지선 (2020). “성별과 가해자 연령이 아동 성폭력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pp.287-307.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pp.53-70.
- 김희정 (2017).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 & 문화, 32(2), pp.125-173.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pp.146-168.
- 박상조·박승관 (2016).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pp.145-177.
- 박지선·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pp.295-316.
- 박혜영·신호창·허종욱·서수연 (2018). “한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 및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재외동포 이미지 및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광고 PR 실학연구, 11(1), pp.98-130.
- 박희찬·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pp.27-49.
- 배준환·이춘호 (2018). “한국 인터넷 뉴스 댓글에 나타나는 재한 조선족 이미지 고찰”, 국제문화연구, 11(2), pp.83-106.
- 양동옥·국혜윤·백현경·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pp.323-345.
-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5), pp.194-237.
- 이가영·인다희·김범준 (2018). “심리적 거리와 처벌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4), pp.25-40.
- 이기수·윤상연 (2017). “언론보도상 ‘잔혹 범죄’의 발생 추이와 과대추정현상 극복방안”, 경찰학논총, 12(1), pp.165-189.

- 이예림·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pp.75-97.
- 이정원·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pp.47-73.
- 이종원·윤상연·김혜진·허태균 (2014). “권위주의 성격과 인기도에 따른 학교괴롭힘의 참여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pp.109-135.
- 정상원·권గు순 (2014). “권위주의적 성격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27, pp.105-133.
- 정지원·이인숙·김혜숙 (2015).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 판단: 이성 간 강간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64.
- 조병철·김혜숙 (2018). “제 3 자 도덕적 면허 효과: 범법자 소속 집단에 대한 지각이 관찰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pp.1-31.
- 조인숙·김도연 (2020). “은밀하고 모호하게 차별하기: 조선족 관련 미디어 이용, 조선족 이미지, 혐오가 암묵적 차별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1(2), pp.5-37.
- 조우연 (2019). “중국동포의 이미지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62-64.
- 최승혁 (2020). “고의성 판단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 범죄의 전형성 및 심각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pp.329-349.
- 최승혁·허태균 (2020). “그들이라면... 그럴만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pp.55-74.
- 최승혁·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pp.127-140.
- 허윤철·임영호 (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3), pp.267-302.

- 홍세은·이현정·허태균 (2018).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pp.101-118.
- 홍지웅·주혜원·현명호 (2016). “청소년의 권위주의 성격과 친애동기가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효과: 암묵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3(9), pp.233-254.
- Chiricos, T. and Eschholz, S. (2002). “The racial and ethnic typification of crime and the criminal typification of race and ethnicity in local television new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4), pp.400-420.
- Critchlow, B. (1985). “The blame in the bottle: Attribution about drunke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1, pp.258-274.
- Diefenbach, D. L. and West, M. D. (2001). “Violent crime and Poisson regression: A measure and a method for cultivation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3), pp.432-445.
- Doerner, J. K. and Demuth, S. (2010). “The independent and joint effects of race/ethnicity, gender, and age on sentencing outcomes in US federal courts,” *Justice Quarterly*, 27(1), pp.1-27.
- Espinoza, R. K., Willis-Esqueda, C., Toscano, S. and Coons, J (2015). “The impact of ethnicity, immigration status, and socioeconomic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3(3), pp.197-216.
- Estrada, F., Nilsson, A. and Pettersson, T. (2019). “The female offender-A century of registered crime and daily press reporting on women’s crime,” *Nordic Journal of Criminology*, 20(2), pp.138-156.
- Grabe, M. E., Trager, K. D., Lear, M. and Rauch, J. (2006). “Gender in crime news: A case study test of the chivalry hypothesi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9(2), pp.137-163.
- Gravelin, C. R., Biernat, M., and Bucher, C. E. (2019). “Blaming the victim of acquaintance rape: Individual, situational, and sociocultural factors,” *Frontiers in psychology*, 9, pp.1-22.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pp.4-4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Kauff, M., Asbrock, F., Thörner, S. and Wagner, U. (2013). "Side effects of multiculturalism: The interaction effect of a multicultural ideology and authoritarianism on prejudice and diversity belief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3), pp.305-320.
- Kite, D. and Tyson, G. A. (2004). "The impact of perpetrator gender on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2), pp.308-318.
- LaCosse, J., Sekaquaptewa, D., and Bennett, J. (2016). "STEM Stereotypic Attribution Bias Among Women in an Unwelcoming Science Set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0(3), pp.378-397.
- Lowder, E. M., Morrison, M., Kroner, D. G., and Desmarais, S. L. (2019). "Racial bias and LSI-R assessments in probation sentencing and outcom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6(2), pp.210-233.
- Poindexter, P. M., Smith, L., and Heider, D. (2003). "Race and ethnicity in local television news: Framing, story assignments, and source selec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4), pp.524-536.
- Romer, D., Jamieson, K. H., and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pp.88-104.
- Rozmann, N. and Levy, I. (2019) "Attribution of blame toward offenders: Victim and offender ethnicity, and observer ethnic and religious backgroun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 10.1177/0886260519885914.
- Rozmann, N. and Walsh, S. D. (2018). "Perceived threat, blaming attribution, victim ethnicity and punis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 pp.34-40.

- Rye, B. J., Greatrix, S. A. and Enright, C. S. (2006). "The case of the guilty victim: The effects of gender of victim and gender of perpetrator on attributions of blame and responsibility," *Sex Roles*, 54, pp.639-649.
- Savage, M. W., Scarduzio, J. A., Harris, K. L., Carlyle, K. E. and Sheff, S. E. (2017). "News Stori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Participant Sex, Perpetrator Sex, and Violence Severity on Seriousness, Sympathy, and Punishment Preferences," *Health Communication*, 32(6), pp.768-776.
- Singh, A. M. and Sprott, J. B. (2017). "Race matters: Public views on sentencing,"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59(3), pp.285-312.
- Stupar, S., Van de Vijver, F. J. R., Te Lindert, A. and Fontaine, J. R. J. (2014). "Multicultural attitud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perceived ethnic outgroup distance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pp.24-35.
- Wilson, J. M., and Smirles, K. (2020).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effects of type of abuse and perpetrator gen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ifference in the Judgment of Homicide by Offender's Ethnicity and Gender

Eunkyung Jo · Jisun Park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people's judgment of homicide offender punishment differed by offender ethnicity and offender gender. We examined if the effect of offender ethnicity and offender gender on the judgment of offender punishment was mediated by the people's perceived level of offender responsibility, and if the mediation effect was influenced by the people's level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Based on a sample of 275 people(138 males, 137 females) aged between 20 and 59, the study showed that offender gender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judgment of offender punishment, but offender ethnicity did. In other words, people's judgment of homicide offender punishment was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Additionally, for people with strong authoritarian personality, judgment of offender responsibility was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and the level of punishment was evaluated higher for an ethnic Korean offender in China than a Korean offender. Last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 key words: homicide, ethnic Korean in China, women, punishment judgment, authoritarian personality